

2026년 제15회 한국녹색혁신의 날 (KGID) 행사 개최

- 5.6(수)~8(금),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세계은행팀 및 수원국 관계자, 한국기관 등 560여명 역대 최대 규모 참석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논의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기금*의 연례행사인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을 개최하였다.

* 녹색성장기금(KGGTF) :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 Korea Green Innovation Days

< 녹색성장기금 개요 >

- **(의의)** 우리 녹색 혁신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12년 세계은행에 설립한 세계은행 내 유일한 녹색성장 분야 단독 신탁기금
- **(주요사업)** 녹색성장 전략·계획 수립, 관련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개도국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지식공유 사업 등을 수행
- **(지원분야)** 디지털, 농업, 도시개발, 교통, 환경, 에너지, 수자원 등
- **(성과공유)** 우수 한국 녹색성장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年 1회 행사 개최*

* 연도별 행사 주제 : ('24) 2035년 탄소중립 달성, ('25)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길, ('26)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올해 행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Learning from Korea: Scaling Green Growth for Global Impact)"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관과 세계은행 및 코소보·케냐·키르기스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56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81개 한국 기관에서 330여 명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계은행에서도 광저 천(Guangzhe Chen) Planet 부총재와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을 포함한 여러 직원이 참석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1일차(6일)와 2일차(7일)는 농업·교통·에너지·환경·기후·디지털·도시·수자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한국 기관들이 세계은행 사업팀과 함께 분야별 협력 성과를 발표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세계은행 팀과 한국 파트너 기관 간의 양자면담이 병행되어 기술협력,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협조융자(Co-financing)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3일차(8일)에는 전체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먼저, "AI와 글로벌 개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 지광철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장, John Tanui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차관, 배성준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가 패널로 참여하여 AI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어 KGGTF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세션과 함께 온두라스의 디지털 농업 시스템 등 KGGTF 우수 사업사례 발표도 이루어졌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행사 3일차 본회의 축사를 통해, KGGTF가 2012년 출범 이후 누적 약 359억 달러의 세계은행 대출 및 협조융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5년 한 해에만 94개 한국 기관이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9건의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기여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녹색전환(GX)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이는 환경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AI와 녹색성장을 연계한 협력을 KGGTF의 우선과제로 삼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진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Guangzhe Chen 세계은행 Planet 부총재와 별도 면담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ODA 환경 속에서도 KGGTF가 민간 재원 동원과 AI 전환(AI) 및 녹색전환(GX) 협력 확대를 통해 더욱 높은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10)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이 (jerrycap472@korea.kr)

참 고

「녹색혁신의 날(KGID)」 연례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5.6(수)~8(금) / 한국, 세종 컨벤션센터

* (명칭) **K**orea **G**reen **I**nnovation **D**ays

○ (주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 (영문명) Learning from Korea: Scaling Green Growth for Global Impact

** (장소) '14년·'25년(DC), '15년(인도), '17년(탄자니아), '23년(이집트) 개최(이외 한국 개최)

□ (목적) 한국 기관과의 기존 협력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WB·수원국 대상 한국의 기술 전수를 통해 향후 협력 기회를 도모

○ (구성) 한국 기관과 사업별 심층 세션(breakout session) 및 기관 방문(세종시 내, 1~2일차), 사업 협력성과·계획 공유 본 회의(3일차)

○ (조달훈련) 입찰제안서 작성, 입찰방법, 사전 과제제출 및 침삭 등 관심 있는 기관 대상 훈련세션 마련(3일차)

○ (기타) 이외 WB 사업팀별 관계 부처·기관과 양자 면담, 승인 사업팀 대상 지식 및 기술 교류·한국기관 협력 매칭* 실시

* WB 24개팀 중 21개팀이 '25.12월 승인 사업팀으로 팀별로 한국기관과 실질 매칭

□ (참석자) 재경부(개발금융국장), WB 부총재(Planet 부총재) 등 WB 직원*, 수원국**, 한국 관계 부처·기관*** 등 약 560여명 참석 예상

* (WB) Guangzhe Chen Planet VP, WB 사업팀 25개팀 104명

** (수원국) 25개 사업팀 관련 정부 부처·기관 담당자 131명

*** (한국부처·기관) 81개 기관 약 330여명

〈 행사 개요(안) 〉

	5.6(수), 1일차	5.7(목), 2일차	5.8(금), 3일차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스마트농업) 교통 (디지털교통) 에너지 (그린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그린 전환) 기후 기술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회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 세션 에너지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대기) 디지털 (디지털 솔루션) 도시 (PPP)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무소 세션 한국기관과의 협조응자 수자원 (스마트 워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세션 (한국기관) 문화답사 (수원국, WB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금융 (GVCM, GGGI) 	